

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유시민·손학규·정동영 順

부동층 40% 달해 민주세력 통합·단일화 변수로
여권내 후보 적합도는 박근혜 44.9% 압도적 1위

차기 대권 후보

현 정치권 인물 중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32.0%의 압도적 지지로 1위 자리에 올랐다.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 연구원장은 7.8%로 2위를 차지했다.

이어 ▲오세훈 서울시장(7.2%) ▲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UN 사무총장(각 6.6%) ▲김문수 경기도지사(6.4%) ▲이희창 자유선진당 대표(3.3%) ▲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(2.9%) ▲한명숙 전 총리(1.9%) ▲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(1.7%) 등이 뒤를 이었다.

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(1.1%)과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(0.8%),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(0.7%),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각 0.5%,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0.2% 등은 1% 안팎을 기록했다. '없음 또는 모름'은 19.8%

였다.

박 의원은 남성(31.5%)과 여성(32.6%)의 고른 지지를 받았고, 50대 이상(43.0%)과 경북(55.6%)·대구(42.0%)·인천(43.2%)·부산(42.1%)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.

특히 박 의원은 중도(35.3%)와 보수(35.5%) 층에서 지지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박 의원은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(10.5%)와 정동영·정세균 최고위원(각 2.6%) 보다 월등히 높은 26.6%였다.

유시민 원장은 20대(17.5%)와 진보층(13.8%)에서 두 자릿수 지지를 기록했고, 지역별로는 강원(21.1%)과 전남(14.4%), 광주(11.9%), 부산(11.1%)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.

오세훈 시장은 충남(15.0%)과 경북(13.0%)에서, 손학규 대표는 대전(20.0%)과 광

주(19.0%), 전남(13.5%), 전북(10.5%) 등 충청·호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.

여권 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도 박근혜 의원은 44.9%로, 반기문 UN 사무총장(10.6%)과 오세훈 서울시장(8.2%), 김문수 경기도지사(6.8%) 등과 격차를 34%포인트 이상 벌이며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. '없음 또는 모름'이라고 답한 부동층은 24.6%였다.

야권 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유시민 원장(16.6%)이 손학규 대표(16.2%)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, 이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(9.8%)과 이희창 자유선진당 대표(9.2%), 한명숙 전 총리(6.1%) 등이 뒤를 이었다.

하지만, 응답자의 37.9%가 '없음 또는 모름'으로 답해 향후 야권 단일화와 민주세력 통합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오세훈 시장은 충남(15.0%)과 경북(13.0%)에서, 손학규 대표는 대전(20.0%)과 광

주(19.0%), 전남(13.5%), 전북(10.5%) 등 충청·호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.

여권 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도 박근혜 의원은 44.9%로, 반기문 UN 사무총장(10.6%)과 오세훈 서울시장(8.2%), 김문수 경기도지사(6.8%) 등과 격차를 34%포인트 이상 벌이며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. '없음 또는 모름'이라고 답한 부동층은 24.6%였다.

야권 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유시민 원장(16.6%)이 손학규 대표(16.2%)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, 이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(9.8%)과 이희창 자유선진당 대표(9.2%), 한명숙 전 총리(6.1%) 등이 뒤를 이었다.

하지만, 응답자의 37.9%가 '없음 또는 모름'으로 답해 향후 야권 단일화와 민주세력 통합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오세훈 시장은 충남(15.0%)과 경북(13.0%)에서, 손학규 대표는 대전(20.0%)과 광

국회의원 지지 여부

국민 10명 중 4명 가량(38.1%)이 차기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. 반면 '지지할 것이다'라는 응답자도 36.7%였다.

연령별로는 30대(41.1%)와 40대(39.5%)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 열망이 강한 반면 20대(43.6%)와 50대(40.7%)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지지도가 높았다.

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보다 '지지하지 않을 것'이라는 응답이 많았고, 이 가운데 울산(63.6%)·광주(57.1%)·충북과 충남(각 50.0%)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

반면, 전남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가 35.1%로, '지지하지 않았다'(27.0%)보다 더 많았다.

가장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.5%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하고, 1선거구당 2~4인을 뽑는 중선

거구제는 17.9%로 나타났다. 연령·지역별 면에서 모두 소선거구제 선호도가 높았지만, 유독 전남지역에서만 소선거구제(32.4%) 선호도 보다 중선거구제(45.9%) 선호도가 높았다.

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35.1%, 민주당이 23.8%를 기록했다.

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50대(49.8%)와 60대 이상(46.3%), 대구(58.7%)·경북(61.7%)·부산(43.1%)·울산(42.4%), 보수층(50.4%)에게서 강세를 보였다. 반면 민주

당은 20대(30.4%)와 30대(22.9%), 광주(56.0%)·전남(49.5%)·전북(45.6%), 진보층(37.2%)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다. 최근 1년간 한나라당은 대체로 30% 중반, 민주당은 20% 초중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.

이밖에 군소정당 지지도는 국민참여당(7.0%), 민주노동당(4.9%), 자유선진당(2.5%), 진보신당(2.0%), 창조한국당(1.2%), 미래 희망연대(1.1%) 순으로 조사됐다.

거구제는 17.9%로 나타났다. 연령·지역별 면에서 모두 소선거구제 선호도가 높았지만, 유독 전남지역에서만 소선거구제(32.4%) 선호도 보다 중선거구제(45.9%) 선호도가 높았다.

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35.1%, 민주당이 23.8%를 기록했다.

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50대(49.8%)와 60대 이상(46.3%), 대구(58.7%)·경북(61.7%)·부산(43.1%)·울산(42.4%), 보수층(50.4%)에게서 강세를 보였다. 반면 민주

당은 20대(30.4%)와 30대(22.9%), 광주(56.0%)·전남(49.5%)·전북(45.6%), 진보층(37.2%)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다. 최근 1년간 한나라당은 대체로 30% 중반, 민주당은 20% 초중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.

이밖에 군소정당 지지도는 국민참여당(7.0%), 민주노동당(4.9%), 자유선진당(2.5%), 진보신당(2.0%), 창조한국당(1.2%), 미래 희망연대(1.1%) 순으로 조사됐다.

거구제는 17.9%로 나타났다. 연령·지역별 면에서 모두 소선거구제 선호도가 높았지만, 유독 전남지역에서만 소선거구제(32.4%) 선호도 보다 중선거구제(45.9%) 선호도가 높았다.

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35.1%, 민주당이 23.8%를 기록했다.

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50대(49.8%)와 60대 이상(46.3%), 대구(58.7%)·경북(61.7%)·부산(43.1%)·울산(42.4%), 보수층(50.4%)에게서 강세를 보였다. 반면 민주

당은 20대(30.4%)와 30대(22.9%), 광주(56.0%)·전남(49.5%)·전북(45.6%), 진보층(37.2%)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다. 최근 1년간 한나라당은 대체로 30% 중반, 민주당은 20% 초중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.

이밖에 군소정당 지지도는 국민참여당(7.0%), 민주노동당(4.9%), 자유선진당(2.5%), 진보신당(2.0%), 창조한국당(1.2%), 미래 희망연대(1.1%) 순으로 조사됐다.

거구제는 17.9%로 나타났다. 연령·지역별 면에서 모두 소선거구제 선호도가 높았지만, 유독 전남지역에서만 소선거구제(32.4%) 선호도 보다 중선거구제(45.9%) 선호도가 높았다.

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35.1%, 민주당이 23.8%를 기록했다.

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50대(49.8%)와 60대 이상(46.3%), 대구(58.7%)·경북(61.7%)·부산(43.1%)·울산(42.4%), 보수층(50.4%)에게서 강세를 보였다. 반면 민주

당은 20대(30.4%)와 30대(22.9%), 광주(56.0%)·전남(49.5%)·전북(45.6%), 진보층(37.2%)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다. 최근 1년간 한나라당은 대체로 30% 중반, 민주당은 20% 초중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.

이밖에 군소정당 지지도는 국민참여당(7.0%), 민주노동당(4.9%), 자유선진당(2.5%), 진보신당(2.0%), 창조한국당(1.2%), 미래 희망연대(1.1%) 순으로 조사됐다.

거구제는 17.9%로 나타났다. 연령·지역별 면에서 모두 소선거구제 선호도가 높았지만, 유독 전남지역에서만 소선거구제(32.4%) 선호도 보다 중선거구제(45.9%) 선호도가 높았다.

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35.1%, 민주당이 23.8%를 기록했다.

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50대(49.8%)와 60대 이상(46.3%), 대구(58.7%)·경북(61.7%)·부산(43.1%)·울산(42.4%), 보수층(50.4%)에게서 강세를 보였다. 반면 민주

당은 20대(30.4%)와 30대(22.9%), 광주(56.0%)·전남(49.5%)·전북(45.6%), 진보층(37.2%)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다. 최근 1년간 한나라당은 대체로 30% 중반, 민주당은 20% 초중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.

이밖에 군소정당 지지도는 국민참여당(7.0%), 민주노동당(4.9%), 자유선진당(2.5%), 진보신당(2.0%), 창조한국당(1.2%), 미래 희망연대(1.1%) 순으로 조사됐다.

거구제는 17.9%로 나타났다. 연령·지역별 면에서 모두 소선거구제 선호도가 높았지만, 유독 전남지역에서만 소선거구제(32.4%) 선호도 보다 중선거구제(45.9%) 선호도가 높았다.

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35.1%, 민주당이 23.8%를 기록했다.

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50대(49.8%)와 60대 이상(46.3%), 대구(58.7%)·경북(61.7%)·부산(43.1%)·울산(42.4%), 보수층(50.4%)에게서 강세를 보였다. 반면 민주

당은 20대(30.4%)와 30대(22.9%), 광주(56.0%)·전남(49.5%)·전북(45.6%), 진보층(37.2%)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다. 최근 1년간 한나라당은 대체로 30% 중반, 민주당은 20% 초중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.

이밖에 군소정당 지지도는 국민참여당(7.0%), 민주노동당(4.9%), 자유선진당(2.5%), 진보신당(2.0%), 창조한국당(1.2%), 미래 희망연대(1.1%) 순으로 조사됐다.

거구제는 17.9%로 나타났다. 연령·지역별 면에서 모두 소선거구제 선호도가 높았지만, 유독 전남지역에서만 소선거구제(32.4%) 선호도 보다 중선거구제(45.9%) 선호도가 높았다.

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35.1%, 민주당이 23.8%를 기록했다.

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50대(49.8%)와 60대 이상(46.3%), 대구(58.7%)·경북(61.7%)·부산(43.1%)·울산(42.4%), 보수층(50.4%)에게서 강세를 보였다. 반면 민주

당은 20대(30.4%)와 30대(22.9%), 광주(56.0%)·전남(49.5%)·전북(45.6%), 진보층(37.2%)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다. 최근 1년간 한나라당은 대체로 30% 중반, 민주당은 20% 초중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.

이밖에 군소정당 지지도는 국민참여당(7.0%), 민주노동당(4.9%), 자유선진당(2.5%), 진보신당(2.0%), 창조한국당(1.2%), 미래 희망연대(1.1%) 순으로 조사됐다.

거구제는 17.9%로 나타났다. 연령·지역별 면에서 모두 소선거구제 선호도가 높았지만, 유독 전남지역에서만 소선거구제(32.4%) 선호도 보다 중선거구제(45.9%) 선호도가 높았다.

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35.1%, 민주당이 23.8%를 기록했다.

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50대(49.8%)와 60대 이상(46.3%), 대구(58.7%)·경북(61.7%)·부산(43.1%)·울산(42.4%), 보수층(50.4%)에게서 강세를 보였다. 반면 민주

당은 20대(30.4%)와 30대(22.9%), 광주(56.0%)·전남(49.5%)·전북(45.6%), 진보층(37.2%)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다. 최근 1년간 한나라당은 대체로 30% 중반, 민주당은 20% 초중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.

이밖에 군소정당 지지도는 국민참여당(7.0%), 민주노동당(4.9%), 자유선진당(2.5%), 진보신당(2.0%), 창조한국당(1.2%), 미래 희망연대(1.1%) 순으로 조사됐다.

거구제는 17.9%로 나타났다. 연령·지역별 면에서 모두 소선거구제 선호도가 높았지만, 유독 전남지역에서만 소선거구제(32.4%) 선호도 보다 중선거구제(45.9%) 선호도가 높았다.

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35.1%, 민주당이 23.8%를 기록했다.

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50대(49.8%)와 60대 이상(46.3%), 대구(58.7%)·경북(61.7%)·부산(43.1%)·울산(42.4%), 보수층(50.4%)에게서 강세를 보였다. 반면 민주